진속불이와 쌍차쌍조

〈眞俗不二〉 〈雙遮雙照〉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⑧ 중도(中道)

〈산꼭대기 사람과 네거리 사람〉

법좌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은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으면서 몸이 나올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네거리에 있어서 나아가고 물러날 데가 없다.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 유마힐이라 하지 말고 부대사라 하지 말라. 수고했느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뚝 솟은 산봉우리 위(孤峰頂上)에 있고 한 사람은 네거리(十字街頭)에 있다고 했다.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몸이 나올 길이 없고 네거리에 있는 사람은 향배(向背)가 없다. 향배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유마힐이나 부대사의 경우로 보지 말라고 충고를 한다.

산꼭대기(高峰頂上)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네거리(十字街頭)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높은 산봉우리'는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른 절대 평등의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네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곳으로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전자를 진제(眞諦) 혹은 출세간(出世間)이라 한다면 후자는 속제(俗諦) 곧 세간이다. 조동종에서 써온 선(禪)의 용어로 말하면 본분(本分) 정위(正位)와 현성(現成) 편위(偏位)다. 이 두 경계가 상즉(相卽)해 있는 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평등 속에 차별이고 차별 속에 평등'이라는 말이다.

유마힐은 〈유마경〉 '입불이법문품'에 설해져 있는 마지막 장면처럼 침묵을 지킨 두구(杜口)의 장본인이요 부대사(497~569)는 양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으로 많은 설법을 한 인물이다. 고봉정산에 있는 사람을 유마거사로, 십자가두에 있는 사람을 부대사 같은 사람이라고 구분해 보지 말라는 충고를 또 해 놓는다. 이 대목의 법문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중도(中道)를 밝혀 놓은 법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이 단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여의고 부처를 찾는 것은 토끼 뿔을 찾는 것이다.(佛法只在世間中離世覓佛求兎角)"는 송구의 뜻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길가는 일과 집안 일〉

법좌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은 겁을 논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길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나서 길에도 있지 아니하니 어느 사람이 인천(人天)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길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을 두고 대중에게 질문을 한 법문이다. 길에 있는 것이란 도중사(途中事)를 말하고 집에 있는 것이란 가리사(家裏事)를 말한다. 가사(家舍)가 바로 가리사다. 수행이나 공부에 있어서 안으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여 본분의 공부를 하는 쪽을 가리사라하고 외부 대상세계에 응하여 방편을 응용하는 쪽을 도중사라 하여 서로 상대적인 말로 써왔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중사에 몰두하되 가리사도 잊지 않고 또 한 사람은 가리사도 잊어버리고 도중사도 내 몰라 하니 두 사람이 판이하다. 이걸 두고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인천의 공양을 누가 받을 만하냐고 물어본다. 우열을 판단해 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지만 속뜻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리사니 도중사니 운운하는 것이나, 둘 다 부정하는 따위의 일을 집어치우라는 말이다.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중도(中道)를 천명한 법문이다.

흔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역할을 가리사(家裏事)와 중도사(中途事)라고 짝을 지어 말한다. 또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둘이 원융무애하게 조화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불법(佛法)의 마지막 경지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나와 남 해탈케 하는 것



세상 속 경전읽기

⑧ 발심(發心)과 육바라밀 수행

말과 행동은 마음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진다. 곧 발심(發心) 후에 언행(言行)이 이루어진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손가락을 꼼지락거려야지'라는 발심 후에, 책장을 넘기는 것도 '책장을 넘겨야지'라는 발심 후에 이루어진다. 선심(善心)이 일어나면 착한 언행을 하고, 악심(惡心)이 일어나면 악한 언행을 한다.

인간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고(四苦)에, 미운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취온(五取蘊)이 치성한 고(苦)의 네 가지를 더한 8고(八苦)에 시달린다. 이러한 고(苦)를 싫어하고 보리와 열반을 얻고자 하면, 불교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불교 공부의 순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니, 곧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수행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해행증의 발심(發心)을 하는 것이다.

마명(馬鳴)보살이 지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이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성취발심은 신심성취발결정심(信心成就發決定心)의 줄임말이니, 곧 신심을 성취하여 결정심[불법(佛法)에 의혹(疑惑)이 없는 마음]을 발(發)하는 것이다. 해행발심은 해공행바라밀발회향심(解空行波羅蜜發廻向心)의 줄임말이니, 곧 공(空)의 도리를 이해하고, 바라밀 수행을 하여, 회향심을 발하는 것이다. 증발심은 증법신발진심(證法身發眞心)의 줄임말이니, 법신을 증명하고 진심(참마음)을 발하는 것이다.

해행발심 중의 행바라밀 곧 바라밀 수행이란, '법성(法性 · 만유의 본체로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隨順)하여 .....바라밀 수행을 한다[以知法性.....故, 隨順修行.....波羅蜜].' 여기에서 법성은 곧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므로, 간탐(慳貪 · 탐냄), 오욕(五欲), 진뇌(瞋惱 · 화냄), 해태(懈怠 · 게으름), 난(亂 · 어지러움), 무명(無明 · 밝지 못함) 등이 없다. 바라밀 수행은, 번뇌에 가린 법성에서 번뇌의 때를 벗겨내어, 법성 곧 자성청정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육바라밀을 각각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법성의 체(體)에 간탐(慳貪)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隨順)하여 보시(布施)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오염이 없어 오욕(五欲 · 재물욕, 이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허물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지계(持戒)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괴로움이 없어 진뇌(瞋惱)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인욕(忍辱)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몸과 마음의 모습이 없어 게으름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정진(精進)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에 항상 정(定)하여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선정(禪定)바라밀 수행을 한다.

법성의 체(體)가 밝아 무명 여읨을 아는 까닭에, (그에) 수순하여 지혜(智慧)바라밀을 수행한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解釋分 分別發趣道相'

용수(龍樹)보살이 짓고, 진제(眞諦)가 번역한 〈보행왕정론〉에서는 육바라밀 중 보시와 지계는 이타(利他)에, 인욕과 정진은 자리(自利)에 선정과 지혜는 자타해탈(自他解脫)에 배대시키고, 대승의 육바라밀을 비롯한 붓다의 바른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자타를 해탈시키는 것임을 설하였다.

"보시와 지계로써 이타(利他)하며 인욕과 정진으로써 자리(自利)하고 선정과 지혜로 자타(自他)를 해탈시킨다. 간략하게 대승의 뜻을 취하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간략히 말하자면, 나와 남을 해탈케 하는 것이다." [由施戒利他 忍進爲自利 定慧脫自他 略攝大乘義 略說佛正教 謂解脫自他]

〈寶行王正論 T1656_.32.0502a21-3〉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이해의 길 34

붓다 말씀에 경중 없다

"야구가 죽어야 축구가 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모두 식은 어느 날 공공화장실에서 발견한 낙서다. 어느 축구 팬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축구의 열기가 식고 다시 프로야구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패러디해서 쓴 것 같았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낳은 해프닝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대표 경기를 제외하면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야구가 죽어야 축구가 사는 것은 아니다. 그저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해서 즐기면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연출된다. 불교는 중국인들과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일종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다. 예컨대 수많은 경전들 가운데 〈화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화엄종이다. 〈법화경〉과 〈열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었다. 대학에서 축구나 야구, 농구 동아리를 만든 것처럼 말이다. 중국의 종파불교, 교학불교는 이렇게 탄생되었다.

중국에서 형성된 종파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신들이 소의(所依)로 하고 있는 경전의 주석서도 만들어내면서 교학의 발전이라는 지적 성과를 이루어낸다. 그 과정에서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뛰어난 승려들이 많이 등장한다. 중국의 화엄종을 대표하는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과 천태종의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종파 간의 경쟁 속에서 배출된 중국불교계의 걸출한 인물들이다.

천태종을 비롯한 각 종파에서는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교상판석(敎相判釋)이라고 한다. 흔히 교판(敎判)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물리학, 문학, 생물학 등 주제별로 분류해서 배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그 코너에 가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판은 경전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는 5시교판(五時敎判)이라 불리는 경전 분류 작업을 하였다. 말하자면 불교의 모든 경전은 붓다가 다섯 번(五時)에 걸쳐서 완성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 맨 처음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4성제나 8정도와 같이 비교적 쉬운 〈아함경〉을 설하고, 그 다음으로 〈방등경〉과 〈반야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로 설한 가르침이 천태종의 소의 경전인 〈법화경〉과 〈열반경〉이라는 것이 5시교판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모든 경전은 이 교판 안에서 주제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명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붓다와 경전을 소재로 한편의 소설을 구성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전에 가격을 매겼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천태종의 소의 경전인 〈법화경〉과 〈열반경〉이 만원이라면, 〈화엄경〉은 8천원, 〈아함경〉은 5천, 이런 식으로 계산되었던 것이다. 가수 조용필이 전성기 때는 처음이나 중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등장하여 무대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과 〈열반경〉이 조용필이었던 것이다.

화엄종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교판을 따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조용필은 〈화엄경〉이기 때문에 만원을 책정하고, 〈법화경〉은 6천 원 정도로 깎아내렸다. 종파간의 지나친 경쟁이 낳은 결과다.

한국불교에도 이러한 '우리 경전 최고' 의식이 남아있다. 특정 경전 제일주의는 붓다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붓다는 대중들의 성향과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지향하였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경전을 선택해서 신행(信行)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붓다의 모든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